

현실 너머의 풍경을 채집하다

하서 신혜경·홍미희 2인전 'Hallucination(환영)' 김리아갤러리에서 개최

- 김리아갤러리,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홍미희·신혜경 2인전 'Hallucination (환영)' 개최
- 풍경·이미지를 '채집'·'특이점'의 개념으로 확장, 평면·입체를 넘나드는 실험적 회화 세계 선보여
- 현실과 비현실, 관념과 물질의 경계를 탐색하며 '환영(幻影)'의 본질적 의미를 질문



하서 신혜경·홍미희 2인전 'Hallucination(환영)' 전시 알림 포스터

김리아갤러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홍미희·신혜경 2인전 'Hallucination (환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신혜경의 '특이점의 세계'와 홍미희의 '자연의 풍경'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 관찰과 몰입,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한자리에 모은다. 전시 제목 'Hallucination(환영)'은, 감각의 진실이 흔들리는 지점을 은유한다. 환각은 단순한 착시나 오류가 아니라, 현실과 허구가 교차하며 매혹과 위험, 창조성과 파괴의 긴장이 공존하는 장이다. 두 작가의 회화는 이러한 환영의 양가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믿어온 '현실'의 경계를 재고하게 한다.

신혜경은 일상의 파편과 보이지 않는 진동, 양자적 가능성을 채집해 감각과 기억의 또 다른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녀가 말하는 '특이점'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임계점이며,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솟아나는 전환의 지점이다. 이는 AI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환각적 오류와도 닮아 있다. 기계가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현실의 빈틈을 상상으로 메우듯, 그녀의 회화는 알 수 없음의 절망을 넘어 새로운 패턴과 서사를 생성한다. 이미지·데이터·기억이 층층이 쌓여 또 다른 차원의 풍경을 열어가는 회화는, 몰입과 도전의 과정을 통해 관람객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불러일으킨다.

홍미희는 자연에서 수집한 색과 경험을 반입체적 저부조 회화로 구현한다. 화면은 평면을 넘어 측면과 공간으로 확장되며, 관람객은 시각적 혼란과 인식의 편향 속에서 '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어긋남을 마주한다. 색띠 형태의 부조를 반복·변주하며 관람객이 산행의 깊이와 리듬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이번 전시의 신작 <숲속에서>는 현실의 풍경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벗어난, 새로운 질서가 깃든 세계를 제시한다.

두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채집'을 탐구한다. 신혜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동과 특이점을 이미지화해 정신적 풍경을 제안하며 홍미희는 자연의 색과 형태를 통해 실재와 환영의 경계를 부조로 확장한다. 이들의 작업은 '잘못 본 것', '틀린 것', '착각' 속에서 오히려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가 보는 현실이 곧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질문을 던진다.

‘Hallucination (환영)’은 두 작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각의 실험실’이다. 관람객은 이 작품들을 통해 인간과 기계, 예술과 과학, 사실과 허구가 교차하는 심연을 마주하게 되며, ‘현실’이라는 무대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하서 신혜경 Haseo Shin Hyekyung (b.1961)은 프랑스에서 회화와 사진을 공부하고, 파리 제8대학에서 사진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마쳐 1995년 조형예술학 박사(사진 전공)를 취득하였다. 박사 논문에서는 현대 사진과 미술의 경계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을 연구했으며, 그녀의 작품 세계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지닌다. 경주 선재미술관 큐레이터와 수원대 산업미술과 교수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혜경은 폴라로이드 작업을 비롯해 “신체”, “확대”, “정원”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 공간, 기억을 탐구하며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실험해왔다. 현재 그녀는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색과 선, 기호들이 뒤엉키거나 떠다니는 추상 그림을 통해 일상의 풍경과 감정, 음악에서 느껴지는 생각들을 감각적 붓질과 다채로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신혜경은 일상의 파편과 보이지 않는 진동, 양자적 가능성을 채집해 감각과 기억의 또 다른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녀가 말하는 ‘특이점’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임계점이며,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솟아나는 전환의 지점이다. 이는 AI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환각적 오류와도 닮아 있다. 기계가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현실의 빈틈을 상상으로 메우듯, 그녀의 회화는 알 수 없음의 절망을 넘어 새로운 패턴과 서사를 생성한다. 이미지·데이터·기억이 층층이 쌓여 또 다른 차원의 풍경을 열어가는 회화는, 몰입과 도전의 과정을 통해 관람객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불러일으킨다.

Haseo Shin Hyekyung (b.1961) studied painting and photography in France and received her B.A., M.A., and Ph.D. in Photography at the University of Paris 8, where she earned her Doctorate in Visual Arts (Photography) in 1995. Her dissertation examined artists working on the boundary between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visual art. Shin's practice carries a documentary quality, recording her life and personal experiences. Drawing from her experience as curator at the Art Sonje Center in Gyeongju and as a professor of Industrial Arts at Suwon University, she has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 and meaning through works ranging from Polaroid experiments to her “Body,” “Enlargement,” and “Garden” series, delving into themes of the human body, space, and memory. Today, her work has evolved into abstract paintings where blurred contours of color, line, and sign overlap or drift, translating everyday landscapes, emotions, and musical impressions into sensuous brushstrokes and richly layered imagery.



Haseo Shin Hyekyung
Untitled 특이점 (2025)

mixed media on canvas
163×131cm



Haseo Shin Hyekyung
Untitled Blessing (2024)

mixed media on canvas
146×113cm



Haseo Shin Hyekyung
Untitled Golden Gate (2025)

mixed media on canvas
110×62cm



Haseo Shin Hyekyung
Untitled 생명 (2022)

mixed media on canvas
53×46cm



Haseo Shin Hyekyung
Untitled (2024)

mixed media on canvas
41×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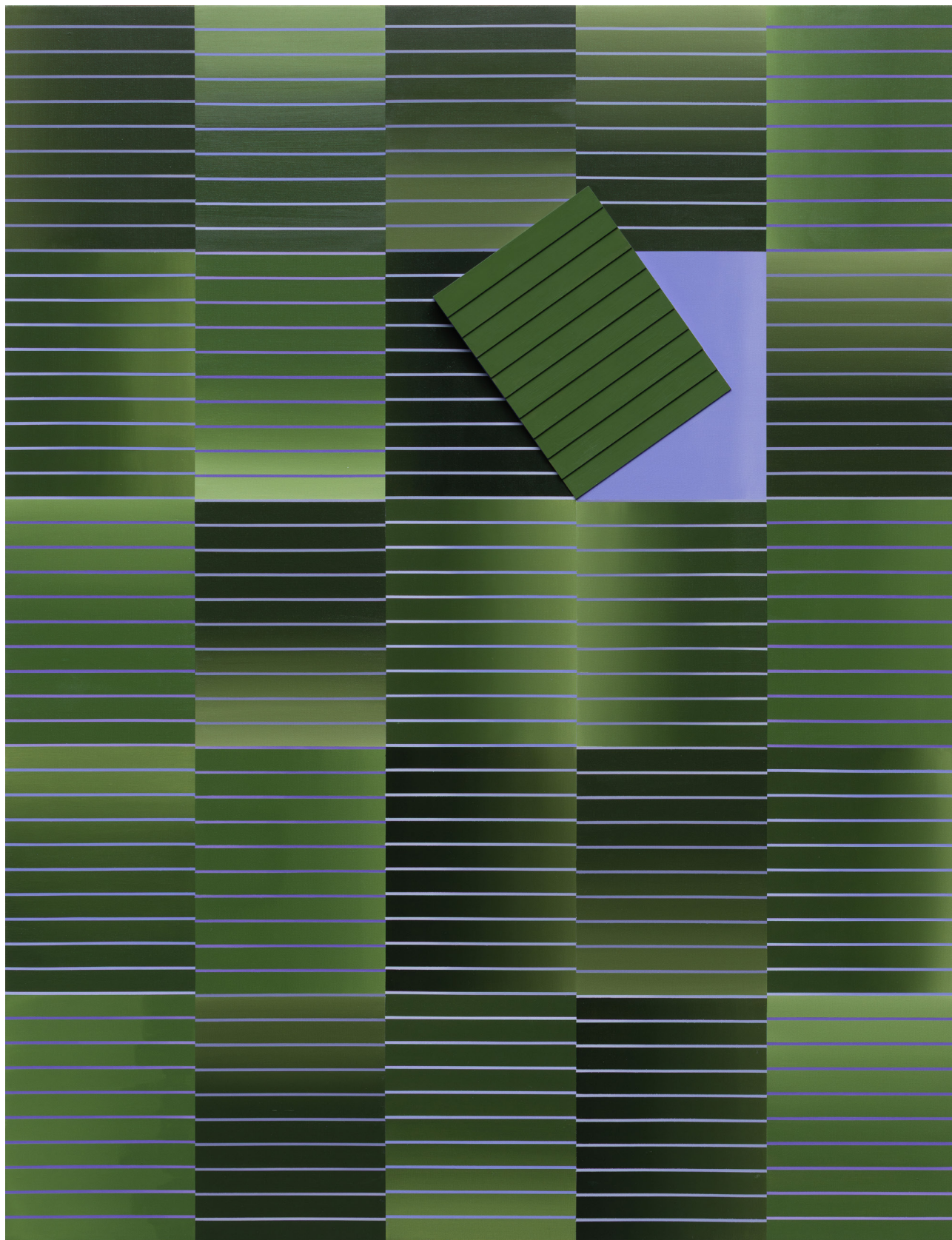


홍미희 작가(1982년생)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통해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는 '저부조회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풍경의 순간에서 얻은 영감을 가장 단순한 선과 색이라는 조형 요소로 환원해낸다. 작가는 획일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조금은 낯선 시각으로 프레임 속 풍경을 바라보며, 그 안에 이야기를 담는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과 존재는 단순한 형식적 결과물이 아닌 예술의 의미를 탐구하는 매개가 되며, 삶과 예술의 근본적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의 작업은 자연으로부터의 경험과 풍경 속 색의 채집 과정을 통해, 비-고정적이고 측정하기 어려운 깊이를 반-입체적 저부조 회화로 구현하는 데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회화가 평면 위에서 붓질, 색의 중첩, 원근법 등을 활용하여 깊이를 시각화한다면, 홍미희의 회화는 종이보드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 물질 그 자체로 깊이를 도출시킨다. 얇은 종이보드는 물감의 역할을 하며, 화면에 입체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면뿐 아니라 상하좌우 다섯 측면을 통해 다각적 감상을 유도한다. 이러한 구조적 화면은 감상자에게 능동적 움직임을 요구하며, 평면과 입체, 2차원과 3차원이 공존하는 새로운 회화적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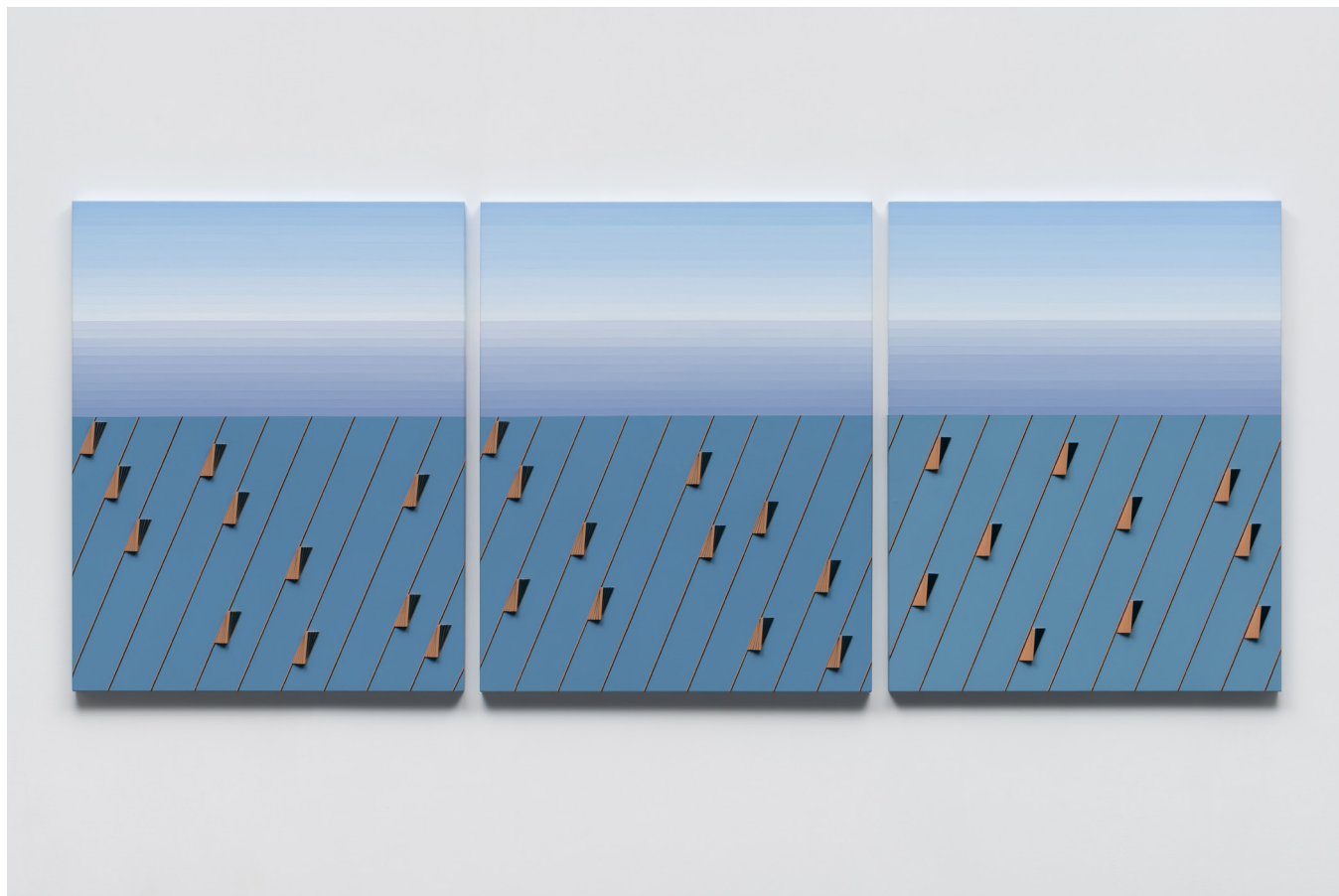
Born in 1982, the artist Hong Mihee majored in Western Painting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has built her career through a variety of exhibitions and artistic activities. She has been continuously researching low-relief painting, reducing the inspiration drawn from moments in landscapes to their simplest formal elements: line and color. Hong approaches framed landscapes from a slightly unfamiliar perspective, moving beyond conventional viewpoints, and imbues them with narrative. The traces and presence that emerge during her process serve not merely as formal outcomes but as mediators for exploring the meaning of art, prompting reflection on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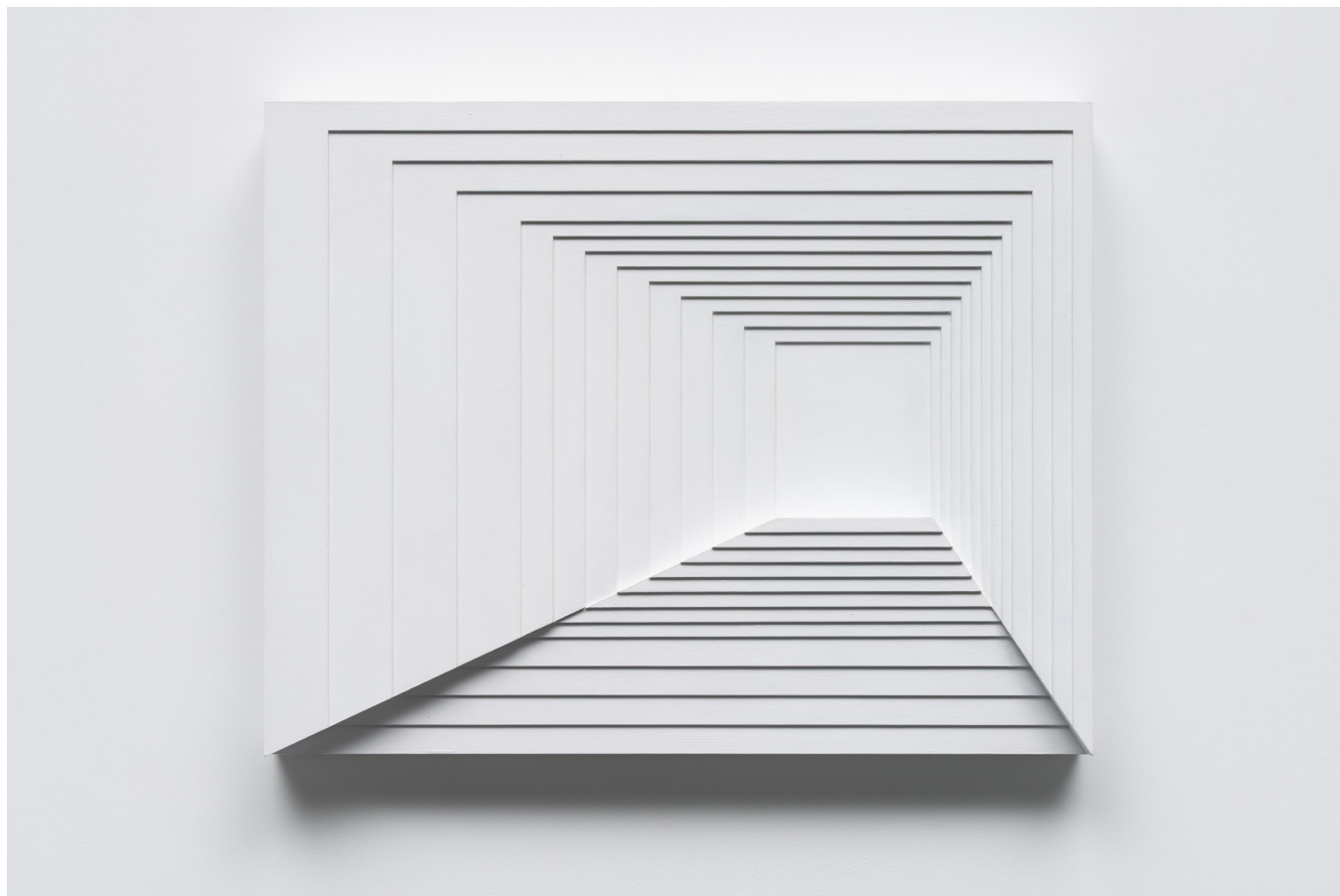
Her work is defined by the creation of a shifting, elusive sense of depth through semi-sculptural low-relief painting, inspired by her experiences in nature and the colors she gathers from landscapes. While traditional painting visualizes depth on a flat surface through brushwork, color layering, and perspective, Hong's paintings build up repeated layers of paperboard, creating depth as a tangible material. Thin layers of paper serve as a medium, endowing the surface with dimensionality while inviting viewers to engage with the work from five angles: front, back, top, bottom, and sides. This structural approach requires active viewer participation and offers a new painterly space where flatness and dimensionality, two-dimensionality and three-dimensionality, coex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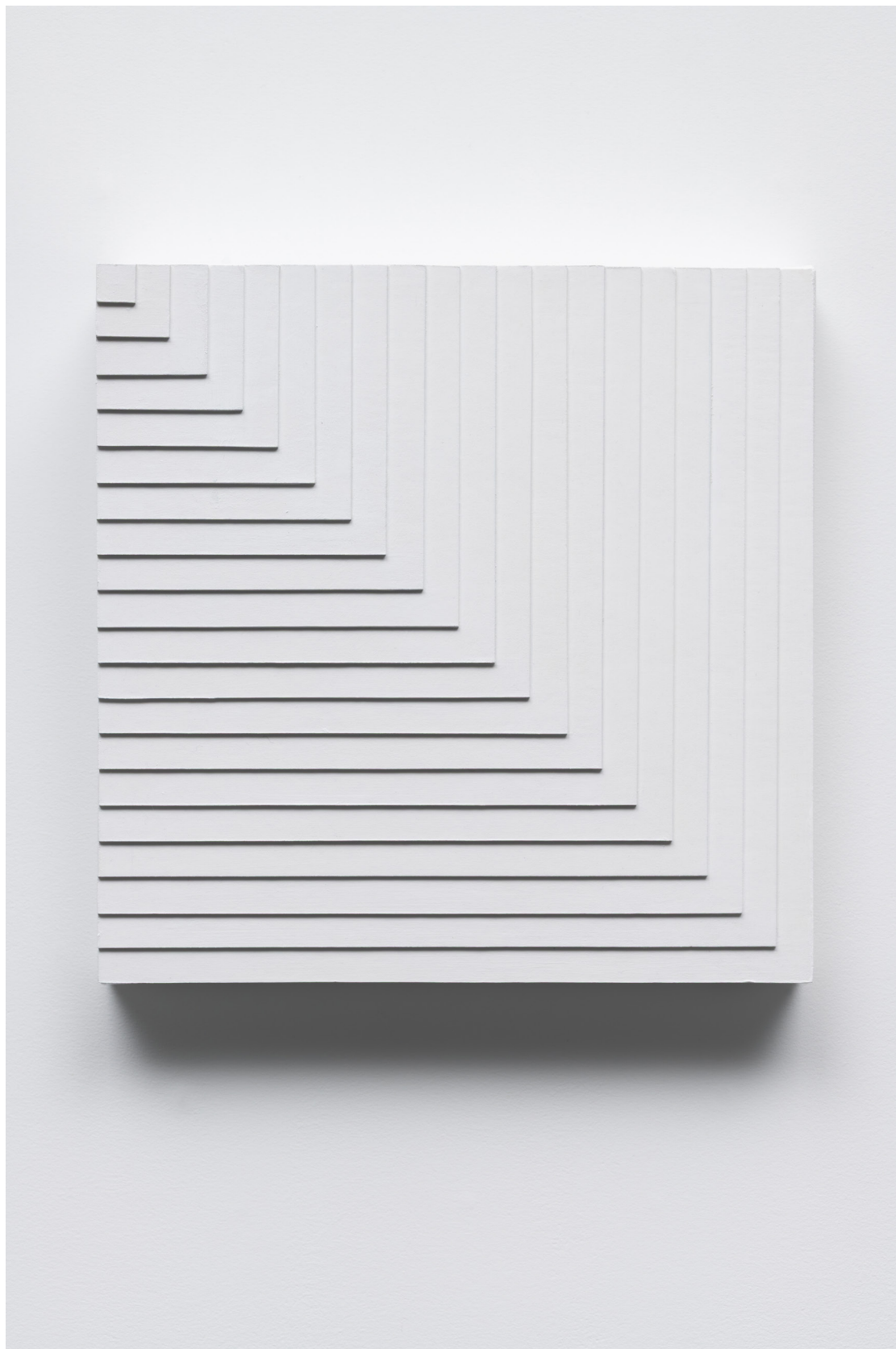


Hong Mihee
숲속에서 A (2025)

acrylic, paste board, canvas on panel
145.5×112.1cm







Hong Mihee
Structure W20 (2025)

acrylic, paste board, canvas on panel
20×20cm